# 엔비디아, 네이버 '3대 주주' 오른다… 1.3조 투자 확정

**엔비디아, 주당 20만4500원에 네이버 655만8435주 인수 예정**
**투자 후 지분 약 4.13% 확보**
**브룩필드와 AI 팩토리 사업 추진**
**투자,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져야**

엔비디아의 네이버 지분 투자가 최종 확정되면서 양사의 인공지능(AI) 동맹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엔비디아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네이버의 3대 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엔비디아의 10억달러 규모 투자에 따른 원화 조달금액을 1조341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엔비디아는 주당 20만4500원에 네이버 신주 655만8435주를 인수한다. 투자금 납입 예정일은 오는 6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7일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왼쪽)가 지난 6월 8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지분 약 4.13%를 확보한다.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에 이어 3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원화 투자금은 약 1397억원, 신주 발행 규모는 68만3129주 감소했다. 최초 적용 환율인 달러당 1480.9원이 1341.2원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달러 기준 투자 규모는 10억달러로 변동이 없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네이버와 엔비디아,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공동 추진하는 AI 팩토리 사업이다. 앞서 엔비디아는 투자 선결조건으로 네이버가 최소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브룩필드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

3사의 역할도 구체화됐다. 네이버는 AI 팩토리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엔비디아는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기술을 지원한다. 브룩필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자산 확보를 담당하는 구조다.

네이버는 세종 데이터센터 '각'을 중심으로 국내외 인프라를 확충해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 2028년 200㎿ 규모의 AI 팩토리 운영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GW)급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약 4.03%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감수하면서까지 글로벌 AI 사업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보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GPU 공급과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결합한 3자 협력 모델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는 네이버가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GPU 공급과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SKT·LG U+, 3분기 영업익 나란히 급증

**SKT, 전년比 11.4배 증가한 5523억**
**LG U+, 84.1% 개선된 2976억 기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4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4배 증가한 552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4조4973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된 개인정보위원회 과징금(1347억원)과 대규모 고객보상 비용에 대한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1667억원 순손실에서 올해 411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84.1% 개선한 29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임직원 희망퇴직으로 발생한 일회성 비용(약 1500억원)이 해소됐다.

다만 매출(3조9813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7% 소폭 줄었다. 자회사 LG헬로비전의 케이블TV 사업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신 사업은 가입 기반 확대와 매출 회복 흐름을 보였다. SK텔레콤은 고객생애가치(LTV) 중심의 마케팅 전환으로 이동통신 매출이 약 13%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매출이 소폭 감소 했지만 가입 회선을 6.2% 늘리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은 순항 중이다. SK텔레콤은 AIDC 매출이 6.2% 증가한 1261억원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해저케이블 트래픽이 증가한 영향이다. LG유플러스는 코로케이션과 DBO(설계·구축·운영) 매출 확대로 27.7% 증가한 1317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양사 모두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퍼와 SK호라이즌을 통해 사업개발과 인프라 운영을 추진하고, LG유플러스는 AIDC 투자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편, KT의 3분기 실적은 오는 10일 발표된다. /조민선 기자 msjo@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들이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 KT-고려대, AI 기술 공동연구 워크숍

글로벌 학회서 12건 논문 채택 성과

KT는 고려대학교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다양한 AI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에이전트, 멀티모달 추론, 피지컬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이다.

양 측은 글로벌 학회(EMNLP, SIGIR 등)에서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멀티모달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국 문화 특화 벤치마크 'KSAFE-MM'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KT는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연구 결과를 자사 AI 모델·서비스·플랫폼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또 축적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IBM, 연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에 '나이트호크' 도입

차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 기동식
IBM 시설 아닌 고객현장 첫 도입

IBM과 연세대학교가 4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차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 가동식'을 열었다. 양측은 국제캠퍼스 양자컴퓨팅센터에 설치된 IBM 퀀텀 시스템 원에 'IBM 퀀텀 나이트호크' 프로세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IBM 자체 시설이 아닌 고객 현장에 나이트호크가 도입된 것은 세계 처음이다.

연세대는 2024년 127큐비트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이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0과 1 가운데 하나의 값만 갖지만, 양자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큐비트가 하나 늘 때마다 한 번에 다루는 경우의 수는 두 배로 커진다.

나이트호크는 IBM이 지금까지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 가운데 가장 빠른 제품이다. 제리 차우 IBM 양자중심슈퍼컴퓨팅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나이트호크에 대해 "120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큐비트를 갖추고 있고 큐비트 간 연결 구조는 정사각형 격자 형태"라며 "실제 물리적 큐비트는 458개"라고 설명했다. 초당 10만 개 이상의 회로를 실행할 수 있으며, IBM은 기존 이글 대비 회로 처리량이 25배 높다고 밝혔다.


4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양자컴퓨팅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 가동식'에서 IBM 퀀텀 나이트호크 프로세스 도입 기념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IBM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큐비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백한희 IBM 리서치 양자 알고리즘 센터 디렉터는 디지털 회로에 빗대 답했다. 일반 컴퓨터가 비트에 정보를 담고 논리 게이트로 연산하듯, 양자컴퓨터도 큐비트에 정보를 담고 이를 엮은 양자 회로로 연산한다는 것이다. 백 디렉터는 "양자컴퓨터의 성능은 양자 회로의 정확도와 실행 횟수가 결정한다"고 했다.

가동식 무대에서는 첫 실행 시연이 진행됐다. 내빈들이 버튼을 누르자 양자 프로그램 코드가 나이트호크 프로세서로 전송돼 실행됐다. 계산 결과는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 '후가쿠'로 보내져 다시 계산된 뒤 인천 송도로 돌아왔다. /김보민 기자 kbm@

# "미래의 강한 군대는 AI 통제·발전시킬 군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IAMSEC 2026'서 기조연설

네이버클라우드는 김유원 대표가 지난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육군 모델링·시뮬레이션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IAMSEC 2026)'에서 미래 전장에 필요한 AI 인프라와 안전한 AI 운용, 민·군 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군에 필요한 AI 규모가 병력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 범위와 분석 주기, 시뮬레이션, 임무 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 가지 AI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규모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맡는 '중앙 AI 팩토리', 정보를 융합해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 AI',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AI'다.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AI 판단을 출처와 근거로 교차 검증하고, 중요한 행동은 사람의 승인을 거쳐 실행하는 '휴먼 인 더 루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모델, 인프라는 군이 직접 통제하는 '소버린 AI' 환경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미래의 강한 군대는 AI를 통제하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군대일 것"이라며 "지휘부는 제도와 통제 체계를 만들고, 현장은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클라우드도 군의 과학화와 지능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